



글 양윤정(아트 칼럼니스트) 에디터 김수진 사진 CAB 재단

## Jean Prouvé, Living Modernism Saint-Paul-de-Vence

남프랑스의 여름과 잘 어울리는 장 프루베의 전시가 생폴드방스 CAB 재단에서 열린다. 집의 의미와 모더니즘 가구의 미학을 색다른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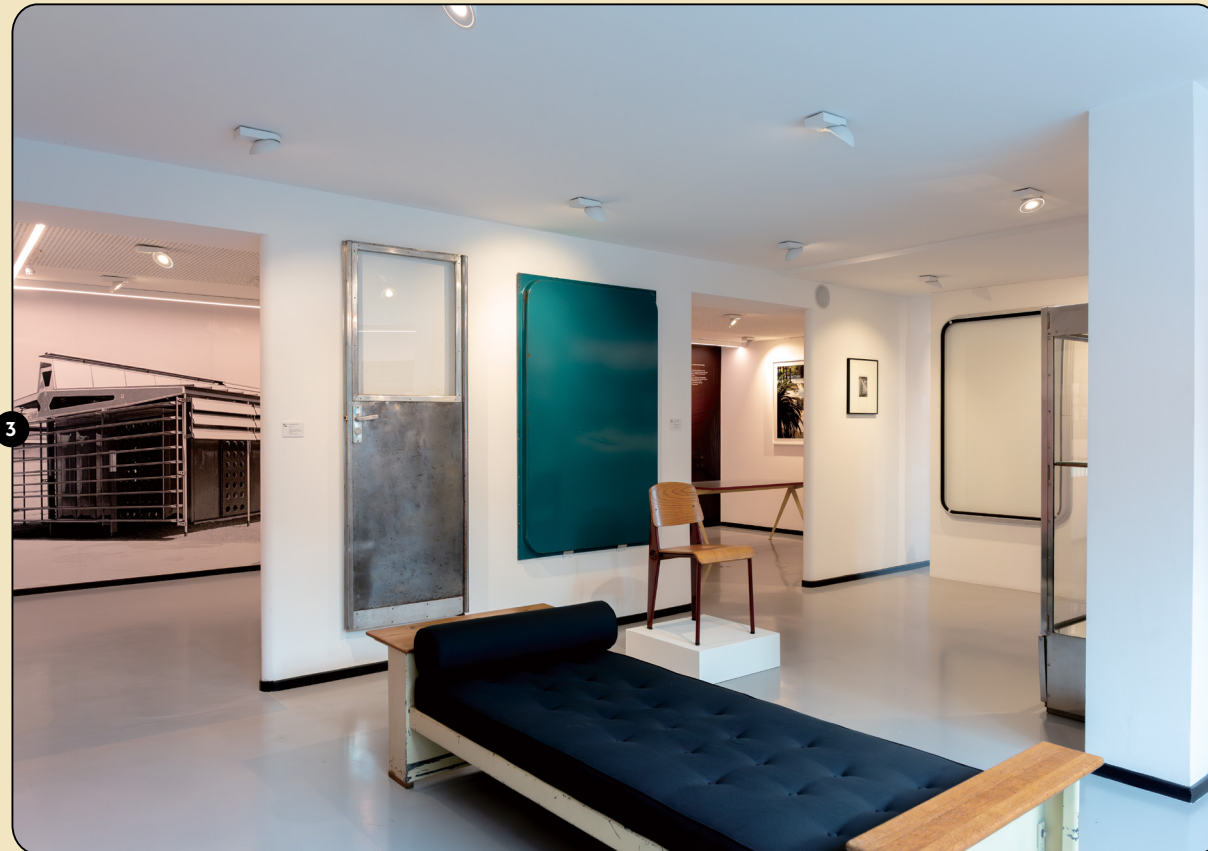
이 전시가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CAB 재단 건물 자체가 장 프루베의 작품들과 상응하는 건축적 맥락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1950년대 건축을 기반으로 프랑스 건축가 샤를 자나(Charles Zana)가 2021년 레노베이션한 건물은 전시 공간과 더불어 복습, 레스토랑, 레지던시, 숙박 시설을 결합한 복합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브뤼셀의 CAB 재단이 남프랑스로 활동 영역을 확장해 개념미술과 디자인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독특한 서비스 한 가지는 장 프루베가 1940년대에 설계한 조립식 주택 '디마운터블 하우스(Demountable House)'에서 실제 하룻밤을 머무는 것이다.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롭게 추가한 것이 아니라 CAB 재단 설립 초기부터 존재한 숙박 서비스라 더욱 주목된다. 원래 전후 긴급 주거를 위해 고안한 6×6m 규모의 주택으로, 프루베의 건축 개념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디자이너 샤를 자나가 현대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일부 요소를 보완했지만, 원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제 프루베의 주택을 체험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숙박을 예약할 수 있으니 남프랑스 방문 시 색다른 경험을 원한다면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다.



리비에라의 푸른 자연과 빛, 그리고 예술이 교차하는 남프랑스의 여름. 생폴드방스의 CAB 재단에서 열리는 <장 프루베 - 집의 발명가(Jean Prouvé - Inventeur de Maisons)>는 특별한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줄 만한 전시다. 프루베의 회고전을 넘어, 현대 건축과 디자인을 전방위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10월 31일까지 이어지니, 올 여름이나 가을에 남프랑스를 방문한다면 필수 목적으로 추천한다.

이 전시는 파리의 라파누르 - 갤러리 다운타운(Laffanour - Galerie Downtown)과 CAB 재단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 초 프랑수아 라파누르(François Laffanour)가 설립한 갤러리 다운타운은 장 프루베를 비롯해 사를로트 페리앙, 세르주 무유 등 전후 프랑스 디자인계의 주요 인물을 다루며 그 가치를 재정립해온 기관이다. 특히 프루베의 가구와 건축적 유산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전시해온 아카이브적 역할은 이번 협업의 기반이 되었다.

장 프루베는 스스로를 건축가라기보다 '제작자(constructeur)'로 정의한 인물이다. 그의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구조이며, 장식을 넘어서는 기능이었다. 금속을 접고 조립하는 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건축과 가구를 설계했고, 모든 요소가 동일한 논리회로에서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 전시는 바로 그 일관된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구성했는데, 의자부터 주택까지 모든 요소를 규모만 다를 뿐 동일한 원리에 따라 디자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시의 핵심은 전후 주택난이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 등장한 프루베의 프리패브(prefabrication) 건축 연구에 있다. 뫼동에서 실현된 '메트로폴(Métropole)'과 '코크(Coque)' 주택은 그의 사유를 집약한 결과물이다. 축을 중심으로 한 포털 프레임 구조, 자립형 패널, 그리고 곡면 강철 셀은 빠른 조립과 경제성, 그리고 구조적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해결책이었다. 그렇게 보다 많은 사람이 접근 가능한 주거용 주택이 탄생했다. 전시에 포함된 유리문, 금속 구조물, 브리조-솔레유 패널 등은 건물의 일부이자 동시에 독립된 오브제로서 기능한다. 가구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낭시 대학교 기숙사를 위해 설계한 시테 침대는 구조적 합리성과 기능적 요구가 어떻게 하나의 형태로 결합하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접힌 강판 구조와 비대칭 헤드보드, 내장 수납 기능을 통해 당시 생활상과 조건을 상상하게 한다. 스탠더드 체어, 콩파스 테이블, 앙토니 암체어, 마르콜 벤치 같은 작품 역시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의 구조적 효율을 구현하려는 그의 디자인 철학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작품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으며, 기능과 형태의 이상적 균형을 보여주는 디자인의 기준으로 남아 있다.



- 1 1955년에 제작한 '앙토니(Antony)' 암체어.
- 2 1950년대에 제작한 시테(Cité)' 침대.
- 3 <장 프루베 - 집의 발명가> 전시 전경.
- 4 1952년경에 제작한 '뫼동(Meudon)' 유리문. 접힌 강철 프레임에 유리가 끼워져 있다.
- 5 1956년경에 제작한 '마르콜(Marcoule)' 벤치.
- 6 실제 투숙이 가능한, CAB 재단 내에 마련한 장 프루베의 '디마운터블 하우스'.



<장 프루베 - 집의 발명가>전은 거주 공간의 구조와 형태,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오늘날에도 어떻게 하면 더 적은 자원으로, 더 효율적이면서 더 나은 삶의 공간을 만들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는 듯하다. 더불어 효율적이면서 미적으로도 훌륭한 모더니즘 디자인이 눈을 즐겁게 한다. 2026년 여름, 남프랑스에서 장 프루베라는 이름을 다시 이해하는 계기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